



# 부모소명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미취학 자녀와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다집단 분석\*

Received: July 14, 2023  
Revised: August 14, 2023  
Accepted: August 29, 2023

김예본<sup>1</sup>, 김유니<sup>2</sup>, 양수진<sup>3</sup>  
이화여자대학교/ 석사졸업<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학생<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교수<sup>3</sup>

교신저자: 양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calling and happiness: A multiple-group analysis of mothers of preschool and adult children

E-MAIL:  
sujinyang@ewha.ac.kr

Yaebon Kim<sup>1</sup>, Uni Kim<sup>2</sup>, Sujin Yang<sup>3</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sup>3</sup>

\* 해당 논문은 202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포스터로  
발표됨.

## ABSTRACT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소명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지, 또한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어머니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세 미취학 자녀를 둔 406명의 어머니와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둔 425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과 구조방정식 및 다집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소명과 행복감 간 직접효과와 삶의 의미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은 부모소명이 삶의 의미로 가는 경로가 더 강한 반면,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은 삶의 의미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소명과 행복감 간 직접 효과와 삶의 의미를 통한 매개효과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부모로서의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밝히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생애 주기에 맞추어 해당 자원의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부모 생애 주기, 부모소명, 삶의 의미, 행복감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 중요하다. 행복은 안정적인 내적 상태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Seligman, 2002), 단순히 개인을 편안한 상태에만 머무르게 하는 데 멈추지 않는다. 어떻게 적응적으로 기능해야 하는지 개인으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한다(Fredrickson, 2001).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행복은 한 사람이 건강한 일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개인에게도 중요하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생애 동안 부모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Rossi, 1968). 즉, 인생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부모는 자녀의 발달과 가족 생활 주기의 여러 단계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고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Coulson et al., 2012). 인간 발달의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 영유아기에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과 돌봄이 필요하다. 양육자로서 부모는 어린 자녀와 신뢰감을 구축해 애착을 형성하고, 자녀의 탐색과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령기 자녀는 영유아와는 다른 형태의 부모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 시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의 확장과 다양한 성취를 통한 목표 설정 및 준비의 맥락에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Holmes, 2014). 반면, 청소년 후기 및 성인기의 자녀는 직계 가족 단위를 벗어나 독립과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Erikson, 1963; Havighurst, 1972). 이렇듯, 부모 역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된 부모의 역할에 부응하고 적응해야 하는데 이러한 단계별 변화를 부모생애주기라 일컬을 수 있겠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적응하는

것은 긴장과 실패 또는 적응의 어려움을 수반하고는 한다.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가족 내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기능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행복이 필요하다. 행복은 부모생애 주기에 맞는 다양한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부모-자녀 관계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며 만들어진 조화로운 삶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 중요하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섬세한 수행을 요구하는 부모의 역할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역할을 희생에 초점을 두는 경우 출산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무경 등, 2016). 반면, 많은 책임과 희생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을 숙명이나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보다, 부모의 역할에 새로운 가치와 인식을 부여하고, 부모라는 정체성을 활용해 보다 목적성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통로로 인식할 수도 있다(Coulson et al., 2012).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부모소명이라 부를 수 있는데, 부모소명을 가진 부모들은 열정을 가지고 양육에 참여해 자녀의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 또한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쁘다, 이수란, 2022). 이처럼 부모됨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로서의 개인이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부모소명의 개념과 그에 대한 실증연구 탐색을 통해 부모들의 건강하고도 행복한 삶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현대 사회로 진입하며 부모의 역할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육아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

족부에서 진행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김영란 등, 2021),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76.2%가 어머니로 나타났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어머니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어떠한 내적 상태에 머무르는지에 따라 삶의 질과 안녕감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화 등, 2017).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어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모가 된다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부모소명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 부모소명이란 부모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녀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며 부모로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과 신념을 의미한다(김수진 등, 2022). Coulson과 동료들(2012)이 개발한 부모소명 척도는 삶의 목적, 의식, 열정이라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부모됨에 연결하고, 항상 자녀에 대해 생각하며, 열정을 갖고 양육에 참여해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부모소명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소명이 높을수록 행복감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쁘다, 이수란, 2022; 이수란 등, 2021). 부모의 역할은 부모가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지속되며, 자의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역할이다(Rossi, 1968). 평생의 책임과 헌신이 수반되는 부모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부모소명이 부모생애주기의 여러 단계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동일하게 긍정적인 발달자원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고, 그 기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탐색은 부모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부모교육과 개입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어 그 시사점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행복한 부모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부모 개인이 자신의 삶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는 과정은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teger와 동료들(2006)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려는 동기인 의미 추구하고 삶이 의미 있다고 지각하는 의미 발견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경험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Ryan & Deci, 2003). 즉, 개인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발견하는 삶의 의미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자기 결정의 과정과 상통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식과 동기 부여를 통해 더 큰 자율성과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할 수 있게 된다(원두리 등, 2005). 생애 과정에서의 의미 탐색과 형성을 위한 노력은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이를 발달시키기 위해 헌신하려는 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Duffy et al., 2012). 즉,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이로운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기여하려는 신념을 의미하는 소명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삶의 의미를 얻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지속되는 부모의 역할은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이기에, 부모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헌신하려는 노력은 전반적인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형

성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소명이 삶의 의미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란 등, 2021). 나아가 삶의 의미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삶의 의미가 행복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예븐, 양수진, 2021; 박주하 등, 2021).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개인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부모로서의 개인의 행복감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어 생애 주기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부모라는 역할의 수행에는 자녀의 발달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Coulson et al., 2012). 자녀의 발달 시기에 맞추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달라지면서 부모생애주기에 단계별로 차별된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에 초점을 맞추어 두 집단을 비교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취학 자녀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박영아, 2005). 실제로 부모가 자녀와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이 자녀가 발달 단계에 맞추어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nier et al., 2016). 부모가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초점을 맞추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미, 김정미, 2017). 한편, 성인 자녀들의 경우 법적인 성년이 되면서 스스로 독립을 이루어나가려고 시작하기 때문에(김분한 등, 2005), 부모로서 요구되는 역할이 다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자녀를 성인으로서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만족스러운 관

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설애, 정영숙, 2017).

시기에 따라 변인별 관계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해 본 선행연구는 부족하나, 각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지속적인 돌봄과 끊임 없는 모니터링으로 인해 양육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아, 2005). 한편,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로, 자녀의 안전과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부모는 종종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되돌아보거나 배우자와 함께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자녀가 독립해 가정을 이루거나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조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김분한 등, 2005).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어린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양육과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양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한 지속적인 환기와 인식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에 대한 탐색을 유도하거나 이에 대한 각성과 책임을 촉구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양육 강도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와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한태숙, 황혜정, 2010),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목적의식과 만족감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성인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자로서의 역할

이 더 이상 기능적이지 못하면서 대안적인 역할을 탐색하고 재정립하는 시기에 마주하게 된다(서수균 등, 2015). 이전과 같이 끊임없는 돌봄과 관여는 오히려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박지영, 진경선, 2021),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지 탐색하는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김예본, 양수진, 2021).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더 다양한 영역을 탐색하는 것이 기능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와 비교하였을 때, 부모의 역할에 대한 환기보다, 자신의 남은 삶이 가질 의미를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실현할 기회가 많아진 만큼, 이를 설명하는 삶의 의미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모소명과 행복 간 직접효과가 부모생애 주기의 여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부모소명과 행복감,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삶의 의미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자녀가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있는지, 반대로 자녀의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평생 전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생애 주기별 개인 내적 자원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부모소명과 행복감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 2.** 삶의 의미를 통한 부모소명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미취학모와 성인자녀모의 부모생애 주기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1~6세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하 미취학모) 406명과 19~38세의 성인 자녀를 둔 중년 여성(이하 성인자녀모) 425명, 총 8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미취학모 집단의 어머니 평균 연령은 37.24세( $SD = 4.24$ ), 자녀 평균 연령은 4.48세( $SD = 1.44$ )였다. 전업주부 여부는 취업주부가 233명(57.4%), 전업주부가 173명(42.6%)이었으며,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1명(0.2%), 고졸 36명(8.9%), 대졸 330명(81.3%), 대학원 이상 39명(9.6%)이었다. 월수입은 200만 원 미만 7명(1.7%), 200~400만 원 미만 105명(25.9%), 400~600만 원 미만 156명(38.4%), 600~800만 원 미만 89명(21.9%), 800만 원 이상 49명(12.1%)이었다. 성인자녀모 집단의 어머니 평균 연령은 55.23세( $SD = 3.77$ )였으며, 자녀 평균 연령은 25.00세( $SD = 3.99$ )였다. 전업주부 여부는 취업주부가 206명(48.5%), 전업주부가 219명(51.5%)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5명(1.2%), 고졸 138명(32.5%), 대졸 254명(59.8%), 대학원 이상 28명(6.6%)이었다. 월수입은 200만 원 미만 21명(4.9%), 200~400만 원 미만 101명(23.8%),

400~600만 원 미만 129명(30.4%), 600~800만 원 미만 96명(22.9%), 800만 원 이상 78명(18.4%)이었다.

## 연구도구

### 부모소명

부모소명을 측정하기 위해 Coulson 등(2012)이 개발한 부모소명 척도(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SSCCS)를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이수란 등, 2021). 부모소명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삶의 목적 6문항(예: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의 운명이다.”), 인식 3문항(예: “나는 내 아이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 열정 2문항(예: “나는 엄마/아빠로 사는 것에 열정적이다.”)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소명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  값이 343.85 ( $df = 41, p < .001$ ), RMSEA는 .09(90% CI = .09 ~ .10), CFI는 0.94, SRMR은 .05로 나타나 괜찮은 적합도가 확인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에 대한 측정 변인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63 ~ .87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는 미취학모의 경우 삶의 목적 .91, 인식 .83, 열정 .78, 전체 .89였고, 성인 자녀모의 경우 삶의 목적 .88, 인식 .84, 열정 .77, 그리고 전체 .89로 나타났다.

###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 등(2004)이 개발하고 원두리 등(2005)이 번안 및 타당화한 삶

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의미 발견 5문항(예: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과 의미 추구 5문항(예: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언제나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는 미취학모 집단에서 의미 발견 .83, 의미 추구 .92, 전체 .85였고, 성인자녀모 집단에서 의미 발견 .85, 의미 추구 .93, 전체 .93이었다.

### 행복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 및 타당화한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삶의 만족 3문항(예: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긍정 정서 3문항(예: “즐거움”), 부정 정서 3문항(예: “짜증나는”)으로 총 3개 하위요인,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행복 점수는 삶의 만족 총점과 긍정 정서의 총점을 더한 값에서 부정 정서의 총점을 뺀 값으로, 최종 행복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는 미취학모의 경우 삶의 만족 .92, 긍정 정서 .89, 부정 정서 .84, 전체 .89로, 성인자녀모의 경우 삶의 만족 .91, 긍정 정서 .93, 부정 정서 .89,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o.ewha-202011-0012-01). 자료 수집은 데이터 수집 전문업체에 의뢰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수집된 총 852명(미취학모 422명, 성인자녀모 430명)의 자료 중 참여기준 불충족(4명), 응답 오류(17명)로 인해 연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1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83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Mplus 7.0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별로 기술 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각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을 검정하고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를 검정하였으며,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구조 모형에서의 집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Kline, 201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취학모 집단에서 부모소명은 삶의 의미( $r = .44, p < .01$ ), 행복( $r = .38, p <$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미취학모  $N=406$ , 성인자녀모  $N=425$ )

	1	2	3
1. 부모소명	-	.44**	.38**
2. 삶의 의미	.32**	-	.53**
3. 행복	.20**	.58**	-
평균	3.63 (3.70)	4.90 (4.62)	5.36 (6.16)
표준편차	0.65 (0.56)	0.97 (0.98)	2.65 (3.23)
왜도	-.03 (-.05)	-.52 (-.01)	-.49 (-.71)
첨도	-.05 (-.18)	.89 (-.39)	.75 (.63)

주. 대각선 위와 괄호 밖 미취학모, 대각선 아래와 괄호 안 성인자녀모 집단의 값임.

\*\* $p < .01$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삶의 의미는 행복( $r = .53, p < .01$ )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인 자녀모 집단인 경우에도 부모소명은 삶의 의미( $r = .32, p < .01$ ), 행복( $r = .20, p < .01$ )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삶의 의미는 행복( $r = .58, p < .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 자녀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검정

자녀의 연령에 따라 주요 변인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삶의 의미는 미취학모 집단이 성인자녀모 집단보다 더 높았고( $t = 4.23, p < .001$ ), 행복의 경우 성인자녀모 집단이 미취학모 집단보다 더 높았다( $t = -3.92, p < .001$ ). 부모소명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측정 모형의 검정

각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모형을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측정 모형의  $\chi^2$  값은 71.55( $df = 18, p < .001$ )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6(90% CI = .05 ~ .08), CFI는 .99, SRMR은 .05로 나타났다. RMSEA는 .08 이하일 경우 괜찮은 적합도로 평가되며

(Browne & Cudeck, 1993), CFI가 .95 이상이고 SRMR이 .08 이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판단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측정 모형의 수렴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각 측정 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가 0.5 이상일 경우 수렴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Hair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측정 모형의 요인부하량은 .52 ~ 1.00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변별타당도는 잠재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0.9 이하일 경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Kline, 2011), 각 잠재 변인들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36 ~ .59로 나타나 측정 모형의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 구조 모형의 검정과 분석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구조 모형의  $\chi^2$  값은 71.55( $df = 18, p < .001$ )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6(90% CI = .05 ~ .08), CFI는 .99, SRMR은 .05로 좋은 모형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연구 모형의 분석 결과, 부모소명이 행복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 = .62, p < .05$ ), 부모소명이 삶의 의미로 가는 경로 또한 정

표 2.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B$ )	표준오차( $SE$ )	표준화( $\beta$ )
부모소명 → 행복	0.62*	0.28	0.09
부모소명 → 삶의 의미	0.97***	0.10	0.48
삶의 의미 → 행복	1.82***	0.16	0.55

\* $p < .05$ , \*\*\* $p < .001$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97, p < .001$ ). 삶의 의미가 행복으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 = 1.82, p < .001$ ).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매개효과 검정

부모소명에서 삶의 의미를 거쳐 행복으로 가는 삶의 의미의 단순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해 연구 집단으로부터 무선 표집을 통해 추출한 10,000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의 검정을 진행하였다(Bollen & Stine, 1990). 검정 결과, 모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부모소명과 행복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단순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 다집단 분석

우선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요인구조가 동일하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검정을 진행하였다. 검정 결과,  $\chi^2 = 108.18(df = 36, p < .001)$ , RMSEA = .07(90% CI = .06 ~ .09), CFI = .98, SRMR = .05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여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다음 단계로, 측정 모형의 요인부하량의 값이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하여,  $\chi^2$  차이 검정을 실시하

여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chi^2$  차이 검정 결과 두 모형의 적합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측정단위동일성이 확보되었다( $\chi^2 \Delta(5) = 9.17, p > .05$ ).

다음으로, 잠재 변인 간 경로계수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단위동일성 모형에서 각각의 경로에 제약을 추가하여 모형 간의  $\chi^2$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소명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에 동등 제약을 설정하여 측정단위동일성 모형과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chi^2 \Delta(1) = 1.95, p > .05$ ). 즉, 미취학모 집단과 성인자녀모 집단 간에 부모소명이 행복으로 가는 경로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소명에서 삶의 의미로 가는 경로, 삶의 의미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에 각각 동등 제약을 추가한 모형 간의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 모두 기각되어 두 경로에 대하여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Delta(1) = 7.83, p < .01$ ;  $\chi^2 \Delta(1) = 4.06, p < .05$ ). 구체적인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소명이 삶의 의미로 가는 경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 $\beta = .59$  vs  $.37, p < .01$ ), 삶의 의미가 행복으로 가는 경로는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beta = .56$  vs  $.59, p < .05$ ).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 경로계수는 그림 1에, 구조계수의 동일성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매개효과 검정 결과

경로	간접효과 (비표준화)	95% 신뢰구간	
		lower	higher
부모소명 → 삶의 의미 → 행복	1.76***	1.36	2.22

\*\*\* $p < .001$



표 5.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 매개효과 검정 결과

집단	경로	간접효과 (비표준화)	95% 신뢰구간	
			lower	higher
미취학모	부모소명 → 삶의 의미 → 행복	1.78***	1.27	2.41
성인자녀모		1.70***	1.18	2.36

\*\*\* $p < .001$

##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부모소명이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삶에서 부모의 역할을 부여받고, 세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역할에 헌신하려는 신념이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기쁘다, 이수란, 2022; 이수란 등, 2021). 본 연구를 통해 자녀를 단지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여기기보다, 자녀가 의미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부모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양육에 열정을 가지려는 인식이 개인이 행복감을 느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부모소명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소명의 출발점인 직업소명을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업에 대한 소명이 높을수록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고유한 의미를 보다 형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 또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ik et al., 2012). 본 연구 결과도 부모의 역할에 대한 소명적 인식이 부모-자녀 관계나 양육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다양한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을 자신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며 열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모소명은 삶에서 의미 있는 목적을 탐색하고 형성하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란 등, 2021). 그리고 부모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형성하는 것은 높은 심리적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예본, 양수진, 2021; 박주하 등, 2021). 따라서 직업만큼이나 부모의 역할에 의미를 두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삶의 의미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세 번째로, 다집단 분석 결과 미취학 자녀와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미취학 모의 경우, 부모소명에서 삶의 의미로 가는 경로의 계수가 성인자녀모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소명이 돌봄에 대한 강도와 자녀에 대한 시간적 투자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집단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양육에서 주체성을 가지며 헌신하려는 태도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인식 중 하나로 나타났다(심위현, 주영아, 2022). 그만큼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있어 부모소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취학 자녀의 어머니의 부모소명이 삶의 의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지 탐색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나 소명은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역할을 의미 있게 인식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하며 세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이다(Coulson et al., 2012). 이를 고려하여 소명과 삶의 의미 간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만큼이나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야 하는 직업에서 소명을 가지는 것이 높은 삶의 의미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eol et al., 2021).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학생의 지도와 교육에 사용하는 교사들 또한 직업에 있어서 소명이 클수록 삶의 의미의 수준이 높아졌다(장진이, 이지연, 2014). 이처럼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강도가 요구되는 미취학모의 부모소명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동시에 의미를 발견하는 삶의 의미 형성에 더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더하여 미취학 자녀를 돌보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클 수 있으나(박영아, 2005), 양육을 통해 부모의 역할 수행에 만족감을 느끼고, 인생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실제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데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기쁘다, 이수란, 2022). 즉,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가 미소나 웃음과 같은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더 만족스럽고 기쁜 경험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직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소명을 가지는 것이 직업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었다(Shang et al., 2022). 더하여 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낮추는 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Seol et al., 2021). 이

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 나아가 관계 가운데 행복감을 얻기 위해 부모의 역할에 있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단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삶의 의미에서 행복으로의 경로는 성인 자녀모 집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하게 된다(서수균 등, 2015). 이는 자동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고 찾는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성인자녀모 집단의 평균 연령은 약 55세로, 인생의 중반부에 진입하는 중년기에 해당된다. 중년기는 이전과 다르게 만성적인 질환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인지적 기능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 시기이다(Infurna et al., 2020). 이 시기의 자녀 또한 부모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계를 확장하며 삶에서 주체성을 얻고자 시도하는 만큼(서수균 등, 2015), 상대적으로 밀착된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미취학 자녀와 비교해 양육에서의 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돌봄에 투여되는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의미를 정립하는 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년기에는 건강한 노년기를 마주하기 위해 안팎으로 발생하는 여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치 있는 삶이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Lachman, 2015). 그렇기에 성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부모가 기존의

역할에 고착되어 영유아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양육과 돌봄을 지속한다면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지연, 진경선, 2021). 그러므로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재탐색해 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와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 모두 부모소명에서 삶의 의미를 매개로 행복으로 가는 간접효과에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큰 틀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변함없이 관심을 갖거나 자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행복한 삶에 있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미취학 자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겠지만, 부모는 그 가운데 자녀의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을 받으며 큰 행복감 또한 느낄 수 있다(심위현, 주영아, 2022). 더하여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심리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즐거움과 기쁨도 경험할 수 있다(김성숙, 2015). 성인기에 진입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부모의 바람대로 자녀가 행동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자녀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삶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고, 만족감 또한 경험할 수 있다(전경숙, 정태연, 2013). 실제로 부모가 성인 자녀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존재로 지각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설애, 정영숙, 2018). 물론 돌봄이라는 역할에 매몰된다면 '헬리콥터 엄마'라는 용어처럼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줄 수 있다(박지연, 진경선, 2021). 그러나 개인과 부모의 역할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녀에 대해 생각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헌신하려는 노력이 개인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모소명이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열정을 갖고 자녀 양육에 헌신을 다하며, 그 가운데 의미를 찾는 부모의 역할을 다시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개인의 삶의 의미 또한 행복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전반적인 삶에서 추구하려는 고유한 목적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큰 틀에 있어서는 부모라는 역할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부모 또한 보다 중요하게 취해야 할 역할이 달라져야 함을 입증하였다. 개인은 삶의 전반에서 주요하게 수행해야 하는 발달 과업이 존재하는데(Erikson, 1963; Havighurst, 1972), 본 연구는 다집단 분석을 통해 부모에게 있어서도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Coulson et al., 2012)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로, 부모소명이 미취학 자녀와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는 부모라는 역할이 일생 동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Rossi, 1968).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전생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 아래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는 자녀에게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

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이경화 등, 2017). 따라서 보호자가 일정한 심리적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이나 개입을 활발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부모의 생애 주기에 맞추어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세심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역할을 맡은 개인에게 있어 행복감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개인 내적 자원을 탐색하고, 실질적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부모로서의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로, 개인의 행복에 있어 외적인 요인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부모소명의 직접 및 매개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신념이나 믿음과 같은 요인에 더하여 양육 태도처럼 실생활에서 관찰될 수 있는 행동적 특성을 지닌 요인을 추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소명이 높더라도 일상에서 나타나는 행동 및 태도가 역기능적이라면, 오히려 심리적 스트레스 및 부담감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obrow, 2006; Vinje & Mittelmark, 2007). 행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탐색한다면 부모의 적응적인 성장과 발달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 및 자세를 취해야 할지 안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부모의 역할을 맡은 개인은 단지 개인의 내외적 특성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부모 개인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지연, 2021).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역할 해야 하는지만 고려할 경우, 부모 개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자녀는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는지, 실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내에서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탐색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참고문헌

- 기쁘다. 이수란 (2022). 부모소명이 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0**(1), 41-52.  
<https://doi.org/10.7466/JFBL.2022.40.1.41>
- 김분한, 김윤숙, 오진환, 정은실 (2005).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경험. **성인간호학회지**, **17**(4), 521-528.
- 김성숙 (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육아 과정에서 경험하는 행복의 의미. **유아교육연구**, **35**(4), 357-379.  
<https://doi.org/10.18023/kjece.2015.35.4.016>

- 김수진, 기쁘다, 이수란 (2022). 부모소명의 한국적 의미와 개념 탐색. **인문논총**, 58, 143-172.  
<https://doi.org/10.33638/JHS.58.6>
- 김영란, 주재선, 정가원, 배호중, 선보영, 최진희, 김수진, 이진숙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44bd59f056694df78e81895b681e9aff.pdf&rs=/rsfiles/202307/>
- 김영미, 김정미 (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상호작용 행동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7(2), 169-187.  
<http://doi.org/10.18023/kjece.2017.37.2.008>
- 김예분, 양수진 (2021). 중년기 전업주부의 그릿과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위기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논총**, 37(2), 5-31.  
<https://doi.org/10.16935/ejss.2021.37.2.001>
-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1.
- 박영아 (200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유아교육연구**, 8, 97-113.  
<https://doi.org/10.18023/kjece.2016.36.1.017>
- 박주하, 배유진, 양수진 (2021).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둔 초산모의 그릿과 행복감의 관계: 삶의 의미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1-20.  
<https://doi.org/10.35574/KJDP.2021.12.34.4.1>
- 박지영, 진경선 (2021).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대학생 자녀의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부모를 향한 거짓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133-151.  
<https://doi.org/10.35574/KJDP.2021.12.34.4.133>
- 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971-990.  
<https://doi.org/10.15842/kjcp.2015.34.4.006>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https://doi.org/10.21193/kjspp.2011.25.1.006>
- 심위현, 주영아 (2022). 영아기 첫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부모됨 인식에 대한 개념도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4(4), 121-144.  
<https://doi.org/10.36431/JPE.14.4.7>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이경화, 심은주, 홍성희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3), 185-205.  
<https://doi.org/10.22155/JFECE.24.3.185.205>
- 이수란, 배유진, 양수진, 기쁘다 (2021).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153-182.  
<https://doi.org/10.35574/KJDP.2021.12.34.4.153>
- 장진이, 이지연 (2014). 교사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의 의미, 소명수행 의식, 삶의 의미, 직업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 123-146.
- 전경숙, 정태연 (2013). 한국사회 중년기 전업주부의 삶의 재평가.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19-44.
- 조설애, 정영숙 (2017).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의 의미와 부모와의 관계 만족, 행복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1), 117-138.
- 조설애, 정영숙 (2018). 중년 부모가 지각한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4), 167-197.  
<https://doi.org/10.35574/KJDP.2018.12.31.4.167>
- 한지연 (2021). 부모-자녀의 행복 수준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67**, 85-107.  
<https://doi.org/10.17854/ffyc.2021.07.67.85>
- 한태숙, 황혜정 (2010).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정서성, 부부갈등 및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0**(5), 99-119.  
<https://doi.org/10.18023/kjece.2010.30.5.005>
- Bernier, A., Calkins, S. D., & Bell, M. A. (2016).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he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s and brain development across infancy. *Child Development*, *87*(4), 1159-1174.  
<https://doi.org/10.1111/cdev.12518>
- Bollen, K. A., & Stine, R. (1990).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lassical and bootstrap estimates of variability. *Sociological Methodology*, 115-140.  
<https://doi.org/10.2307/271084>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Coulson, J. C., Oades, L. G., & Stoyles, G. J. (2012). Parents'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Measurement, development and initial finding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7*(2), 83-94.  
<https://doi.org/10.1080/17439760.2011.633547>
- Dik, B. J., Eldridge, B. M., Steger, M. F., & Duffy, R. D.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 and brief calling scale (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242-263.  
<https://doi.org/10.1177/1069072711434410>
- Dobrow, S. R. (2006). *Having a calling: A longitudinal study of young musici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Duffy, R. D., Allan, B. A., & Bott, E. M. (2012).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vestigating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469-479.  
<https://doi.org/10.1007/s10902-011-9274-6>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 Co.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18>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7th ed.)*. Person Prentice Hall.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David McKay Company.
- Holmes, J. (2014).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Routledge.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Infurna, F. J., Gerstorf, D., & Lachman, M. E. (2020). Midlife in the 2020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merican Psychologist, 75*(4), 470-485.  
<https://doi.org/10.1037/amp000059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Press.
- Lachman, M. E. (2015). Mind the gap in the middle: A call to study midlife.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12*(3-4), 327-334.  
<https://doi.org/10.1080/15427609.2015.1068048>
- Rossi, A. S. (1968).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1), 26-39.  
<https://doi.org/10.2307/350219>
- Ryan, R. M., & Deci, E. L. (2003). On assimilating identities to the self: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internalization and integrity within cultures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253-272). The Guildford Press.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Free Press.
- Seol, J. H., Park, Y., Choi, J., & Sohn, Y. W. (2021). The mediating role of meaning in life in the effects of calling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growth: A longitudinal study of navy soldiers deployed to the Gulf of Aden. *Frontiers in Psychology, 11*, 599109.  
<https://doi.org/10.3389/fpsyg.2020.599109>
- Shang, W., Yu, T., Liang, X., Wang, J., & Su, J. (2022). How does career calling influence preservice teachers' learning engagement? A multiple mediating roles of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vocational outcome expect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3*, 874895.  
<https://doi.org/10.3389/fpsyg.2022.874895>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https://doi.org/10.1037/0022-0167.53.1.80>

Vinje, H. F., & Mittelmark, M. B. (2007). Job engagement's paradoxical role in nurse burnout. *Nursing & Health Sciences*, 9(2), 107-111.

<https://doi.org/10.1111/j.1442-2018.2007.00310.x>

##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calling and happiness: A multiple-group analysis of mothers of preschool and adult children

Yaebon Kim<sup>1</sup>

Uni Kim<sup>2</sup>

Sujin Yang<sup>3</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sup>3</sup>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lling and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calling and happiness, and group differences between mothers by children's age. In this study, 406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ge: 1~6 years) and 425 mothers with adult children (19 years and older) complet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ple-group analysi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direct and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lling and happines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lling and meaning in life was stronger i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in life and happiness was stronger in mothers of adult children. However, there were no group differences in direct and mediating effec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ighlights on the mothers' internal factors that can support personal happiness and the effects varied by the life span development of parents.

*Keywords : Life Cycle of Parents, Parental Calling, Meaning in Life, Happiness*